

# GTX-A 수서~동탄 내년 초 개통 준비 착착

- GTX-A 전 구간 운영 사업 시행자와 위·수탁 협약 체결

… 건설공사 및 차량 시운전도 순조롭게 진행 중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-A 수서~동탄 구간에 대한 운영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  - 이번 협약은 GTX-A 노선 중 수서~동탄(재정) 구간이 운정~서울역(민자) 구간보다 먼저 개통함에 따라, GTX-A 전 구간의 운영을 담당할 사업 시행자(에스지레일(주))에게 수서~동탄 구간의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이다.
- 운영 협약을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수서~동탄 구간 개통을 위한 철도사업 면허 취득, 기관사 교육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즉시 수행하게 된다.
  - 또한, 개통 후에는 여객 운송, 역사·철도차량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수행하며,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후 정산할 계획이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GTX-A 수서~동탄 개통을 위한 건설공사 및 차량 제작·시운전 등 막바지 개통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
  - 대부분의 건설공사와 차량 출고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, 개통 전 안전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·교통안전공단·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운전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.
- 국토교통부 박지홍 철도국장은 “내년 초 수서~동탄 구간 개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, GTX-A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재혁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963)
			사무관	심보경 (044-201-3967)